

산업부, 전기·수소·자율주행車 첨단기술에 341억 추가 투자

오늘부터 한 달간 신규과제 공고
전기차 캐즘에도 성장가능성 커

수소·전기 저상버스 공유 플랫폼
SDV용 고성능 반도체 등에 지원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
첨단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는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업계 기술·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부터 한 달간 미래차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2차



AI 기반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으로 현대차 아이오닉5 차량을 충전하는 모습.

/현대차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신규 과제는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첨단기술 확보와 국제 안전규

제)이며, 341억원 규모다. 산업부는 앞서 올해 2월 1차 공고를 통해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등 17개 품목(세부과제 41개) 38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가스공-서부발전, 800만톤 천연가스 계약

2036년까지 年 75만톤 공급받아
개별요금제 고객으로 새롭게 유치
설비 이용률 등 높여 요금인상 완화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LNG비즈니스허브에서 한국서부발전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으로 서부발전은 2025년~2036년까지 구미·김포·공주천연가스 발전소에 연간 75만톤, 전체 약 800만톤 규모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가스공사는 이번 계약으로 국내 최고의 발전 공기업을 개별요금제 고객으로 새롭게 유치하게 됐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 설비 이용률과 이용 효율을 높여 가스 요금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됐다. 가스공사는 지금까지 연간 약 300만톤의 누적 계약 물량을 달성했으며, 앞으로도 개별요금제 공급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개별요금제 매매계약은 그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아랫줄 왼쪽 4번째)과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아랫줄 왼쪽 3번째)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LNG비즈니스허브에서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가스공사

간 양사가 이어온 다각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도 갖는다.

가스공사와 서부발전은 천연가스 공급 및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협업을 추진해 약 2000억원의 예산을 절감, 지난해 11월 열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중북투자 방지와 재정 효율화·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당초 양사는 경북 칠곡 북삼-군위 구간에 각각 천연가스 배관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중복 구간을 공동 구축하

기로 합의해 배관 노선을 줄이고 설비 규모도 최적화했다.

아울러 배관 운영은 가스공사가 통합 관리해 건설 투자비, 설비 운영 유지보수비 등 예산을 대폭 절감함으로써 가스·전기 요금 인상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계약은 단순한 천연가스 거래를 넘어 보다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망을 구축하고 양사 설비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동서발전, 中企 5곳에 임금피크 인력 파견

수소산업 전환 실무 수행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 소속 임금피크 인력들이 동해·삼척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파견돼 수소산업 전환을 돕는다.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는 지난 2일 본부 대강당에서 '수소 업종전환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영호 동해발전본부장을 비롯해 '셰르파(Sherp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5개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셰르파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의 경력직 임금피크 대상자 중 전문역량을 갖춘 희망자를 선발해 교육한 뒤,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현장에 파견하는 제도로, 인력운영 효율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중소기업 성장과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한다.

동해발전본부는 소속 임금피크 인력 5명을 선발해 업무경력과 전문성에 따라 수소산업 전환을 추진 중인 동해·삼

척지역의 유망 중소기업들과 1대 1 연결을 완료했다.

파견된 '셰르파' 인력은 약 6개월간 기업 현장에서 연구개발 과제 공모, 업무 프로세스 관리 등 수소 전환과 관련한 실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동해·삼척 지역은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액화수소 신재생 평가센터, 액화수소 규제 자유특구와 같이 수소 관련 국책사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 세제 혜택, 기술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동해발전본부는 이러한 지역적 강점을 살려 경험 있는 임금피크 인력을 지역기업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수소산업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황영호 동해발전본부장은 "임금피크 전문인력의 직무 경험을 지역 중소기업과 나누는 협력 모델이 수소산업 전환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허정수, WTO 보조금·상계조치 위원회 의장 선출

(주제네바 공사참사관)

“공정·투명 세계무역 질서확립 기여”

허정수 주제네바 대표부 공사참사관(사진)이 지난 2일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의장에 선출됐다. 의장 임기는 1년으로 3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우리나라 인사가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에 선출된 것은 2016년 김진동 참사관, 2020년 최성요 참사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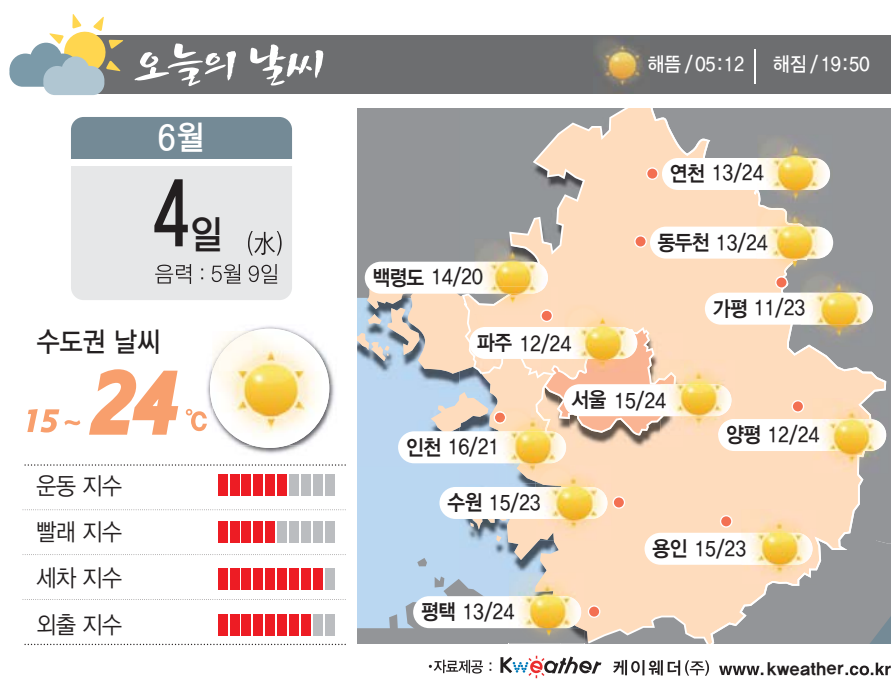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보조금, 상계조치, 관련 국내 입법 등을 검토함으로써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정례기구다.

해당 협정은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함께 WTO의 대표적인 무역구제조치인 상계조치를 규율하는 핵

심 협정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제적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협정 준수와 이행을 감독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위상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허정수 공사참사관이 의장직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계무역 질서 확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日정부, 韓대선일에 “韓은 중요한 이웃나라... 협력 중요성 불변”

/사진 뉴시스

▲트럼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무기 비축하고 있어”

▲백악관 “트럼프·시진핑, 이번주 통화할듯”... 갈등 봉합 시도

▲러우, 최대 포로교환 합의·휴전 불발... 러, 2단계 평화각서 제시

▲中 쉬치량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사망... 과거 시진핑 군권 확보 도와

▲“30분 넘는 낮잠, 조기 사망 위험 높인다” 美 11년 추적 연구